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70·고교생 아들 새벽이

올해 초 내 고등학교가 확정되고 난 뒤 엄마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한시간 거리 있는 그 고등학교 텀블러로 아사한 일이었지. 그때 주위 사람들은 친절 같이 명모삼천지교를 말하곤 했었던 다.

아, 소리가 쫄로 나오지? 아침 5시간 6시간 스텝바스 타고 다녔더니 아사하지 말라던 건 너였고, "무슨 소리! 난 새벽 5시엔 못 일어나 한시간의 아침잠을 그렇게 뺏길 순 없어" 하며 임동실한테 아사를 강행한 건 엄마였으니깐. 명모가 아닌 명모삼천지교였던 가지, 편이겠지. 대학 들어 가서 사귀어도 늦지 않다는 네게 그러지 말고 마음에 드는 여학생 있으면 지금부터 사귀어보라고 자주 바람 넣는 것도 엄마지. 고 1학년생 아이들 매일 늦은 밤까지 그리고 방학까지 벌써 학교에 가두는 교육제도 덕분에 엄마 혼자만의 시간이 풍성해졌다고 가끔 분별없이 좋아하는 것도 알리고.

그렇게 알리는 다른 엄마들과 달리 거의 늘 이 기적이고 거꾸로 뒤쪽박죽이라는 것, 엄마도 잘 안다. 하지만 덕분에 어린 나를 끝까지 스승으로 모시기도 하잖나.

가끔, 새벽 네시쯤 너 혼자 학교 다녔던 커튼을 기억할까. 그날 돌아오는 너 새벽 네 시쯤이든 한 그 시간으로부터 받은 감동과

"아직은 개성없는 예술이지만

너를 보면 나도 희망을 느껴

방학도 없는 여름 꽃따하기"

충격을 예기했었지? 하지만 그때 그래, 그 아픔 담긴 긴, 걸쭉한 일여의 시간이 있었지. 그 시간을 되찾아야 해. 정말 크게 자각받았던 건 엄마 쪽이었을 거다. 그런가하면 며칠전이었지. 방학 다음 날이나 늦잠을 자러니 하고 슬피서 연 네 방에서 이미 책상에 앉아 공책 공부에 몰두하던 너를 보았단다.

분문을 달고 나오면서 생각했지. 내가 저 애를 낳았으니 내 안에 또 분명 저 애와 같은 성실성이 조금은 있었지, 얼마 자선에 대해서야말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단다.

하긴 그럼에도 너는 아직 예술이지. 얼마, 나 커서 뭐하지? 뭐가 되지? 자주도 묻는, 자신에 대한 확신과 개성이 아직 없는 예술이. 그런 네게 엄마는 행여 작가 되질 않을까 편지지 않은 독사를 이세사아 권한다.

세상이란 살아서 살만큼 소금만큼 아픔을 아꼈구나! 이해하게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농구선수였던 아빠에 의하면 인간을 가장 순수하게 정화시켜준다는 운동과 종종 밤 아이들을 웃게 한다는 내 해탈유머 감각이 발휘되는 이 어름을 밝게 지켜주길 또한 바래. 무엇보다 멕시코 이모집이었다가 히와이었다가 태국이었다가 국내로 최종 수정된 휴가여행의 행선지를 내가 결정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나라 지도도 밤 한가득 펼쳐놓고, 엄마는 아지도, 너는 요즘 들어 좋아하는 헤비메탈 음악이라도 크게 켜놓고 말이지.

From: 딸 김경희 (시인)



편집=김영희 기자 khkim@



뒤늦게 불타는 꿈은 그만큼 더 환한 것일까. 연기실습 수업에서 열연중인 장씨의 얼굴이 유난히 환해보인다.

'배움의 길'에 나이는 없다

30대 만학도 장운정씨 美유학기

대학졸업 뒤 직장생활속 인생 고민 뒤늦게 찾은 연극꿈에 무작정 떠나 영어벽에 돈도 없어 고통의 나날 2년째엔 여유... 시련 이겨내 '뿌듯'



실력 문제 대두돼 미국학생에게 개인지도도 받다.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 카운슬링을 받으려다. 취업 교수에게 내 정서상태를 물어보았더니 대뜸 향후유체를 막겠다고 물어보는 것이다. 종적과 심광 속에 다니는 그 선생을 찾지 않았다. 미국친구들이 내 별명을 '조용한 아이'로 지었다는 얘길 전해듣고 싶소했다. 내가 얼마나 수다쟁인지도 내 한국 친구들에게 물어보라지.

#전학(97년 12월~98년 7월)

방학이 다가왔다. 나는 이 학교에 계속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을 굳힌 때였다. 이혼보다 심기 위주의 학교를 찾아야 했다. 한 학기를 다닌 후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웠고 재단에서도 좋아하지 않았다. 연기공부를 쉬고 핑키지 코스트라 틈새라고 했다. 학비-생활비 지원이 중단됐다. 가족사에서 나왔다. 더 이상 그 살벌한 곳에서 받지도 듣고 싶지 않았다. 조그만 동네 아파트 틈새이므로 들어갔다. 정식으로 영어를 배우는 한편 오디션에 노미 학교를 다시 고르기로 시작했다. 내 연기를 진지한 교수 추천한 LA지역의 캘리포니아(California Institute of Arts)도 지원했다. 동양인이 많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학교에 가면 적응하기 좋을 것 같아 응모를 해서였다.

원인의 오디션을 본 후 캘리포니아에서 합격통지서가 왔다. 정말 기쁘고 안심이 됐다.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는데 감사했다. 5월말까지 교수와 친구들에게 자백한사를 했다. 6월 초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캘리포니아를 돌아왔다. 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었다. 한국에서 동생집과 친구집을 전전하며 출판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8월 초 LA를 향해 출발했다.

#이탈로(98년 8월 제입학, 그리고 2001년 5월 졸업까지)

새로운 시작. 문헌면허 시험도 보고 9월 기숙사 입주를 기다렸다. 결론적으로 새 학교는 내게 맞았다. 실기 위주로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연극 외에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이론비평 분야가 있어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었다. 여전히 내 영어는 부족했고 인종·문화적 갭이 존재했지만 훨씬 편안했다. 부족한 것을 갖추거나 부교과 위주로 맡고 있는 그대로 인강하면서 조금씩 더 배워나가기로 다짐했다. 심수하는 걸 두려워했고 약점을 보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게 진정한 연극수업의 시작이란 사실을 이 학교에서 다시 깨달았다. 글썽은 많았지만 보람있는 곳이고 내가 가진 많은 가능성을 시험한 곳이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내 행복은 CUA에서의 불행한 1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누구나 유학초기 6개월에서 1년은 힘들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았다. 나만 유난히 힘들고 힘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3년째의 내 유학생활은 훨씬 여유로웠다. 첫 6개월을 울고 삼삼해서 도 포기않았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내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게 강해했던 것이다.

정리=노성열 기자 nsc@munhwa.co.kr

#플로로그(95-97년 유학준비)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나는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도 계속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있다. 외국인이 되겠다는 막연한 꿈 때문에 밤에 들어갔지만 흥미없는 전공에 바친 대학 4년은 낭비였다. 신문사를 거쳐 연극의 길에 평생을 걸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유학을 떠나기까지의 과정.

95년 2월 공연시 미국평을 받았다. 이 풍부한 문화적 경험 속에 연기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반스앤노들에서 공연예술 전공학생을 위한 진학 가이드북을 사서 6군데의 지원학교를 골랐다. 공통 준비사항은 소개관지, 영어성적 증명서, 대학성적 증명서, 추천서, 재정보충서 등. 연기전공은 고전 및 현대극의 모놀로그(독백) 한 편씩을 선보이는 오디션과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다음 장에는 돈, 직장생활 4년간 저축한 돈은 배우로 살며 다 써버렸다. 살고있던 아파트를 팔면 함께 사는 여동생을 내쫓는 결과가 된다. 삼성문화재단이 펠로우십이란 예술진흥 서·박사 장학제도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복음이었다(현재는 폐지). 96년 처분 1기 선발시험에서 허술하게 준비했던 나 들어가도 받았다. 다음해 꼭 발을 걸심하고 미국현지도 인터뷰와 오디션을 보러 갔다.

이는 분을 신세를 지게된 어려운 테스트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펠로우십도 다시 응시했다. 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유학은 영영한 그림의 떡이라는 각오로! 당연히 합격했다. 미국 CUA(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합격통지도 왔다. 97년 7월 기포공명을 떠났다.

#자목적 첫 학기(97년 8-11월)

기숙사에 입주했다. 개강 첫날, 한국처럼 교수소개 정도로 끝날 거라고 예상했던 기대는 무림이 깨졌다. 미국의 대학원 과정은 한국 고등학교 시간표를 방불케했다. 아침 8시 30분부터 점심시간 시간을 제외하고는 2-3시간 짜리 이론·실기수업이 오후 5시, 혹은 저녁 7시까지 이어졌다.

◆역력

- 1969년 서울생
- 88년 서울에 '발대졸업'
- 92년 조선일보 편집부기자
- 96년 최강지 에디터스 부대표
- 국대 '판' 단원으로 공연 다수
- 97년 6월
- 현재 라디오코리아 앵커 및 배우활동

이론수업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드라마 구조론'과 '연극사' 두 과목을 취소했다. 특히 세미나시 수업은 강사의 거침없는 답변과 질문에 생긴 처음으로 떨어 오고라하고 고개가 떨구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실기수업도 여전히 벅했다. 수업, 도서관, 기숙사를 병행 도는 생활의 연속. 영어

스폰서 없이 현지취업은 '별따기'

美유학 Q&A

Q:뒤늦게 공부할때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가.
A:미국은 학교 입학때 인종, 성별, 나이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돼있다. 현재 미국 대학에서 35세 이상 학생은 200만명으로, 전체 대학재학생의 19.2%에 달한다.

Q:대학 졸업후 현지 취업을 모색할 경우 나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

대학입학때 인종·성별·나이 차별없어

A:미국에서 이력서를 쓸 때는 나이를 적지 않는다. 인터뷰때도 물어볼 수 없도록 돼있다. 심지어 직장에서 서로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Rude(무례한)' 한 일로 여겨진다. 오히려 문제는 현지 취업을 목적으로 유학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대학에서 유학생에게 입학허가서를 내줄 때는 재정증명서를 요구한다. 즉, 학비조달을 위해 현지에서 취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재정능력이 있

음을 확인하고 내주는 것이다. 따라서 유학 의도를 묻는 질문은 '현지 취업을 위해서?'라고 대답하면 당연히 거절된다.

Q: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학후 현지에서 직장을 찾아 새 삶을 꾸리는 사람들이 있다.

A:그것은 유학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일단 현지에서 취업의 기회를 사기위해서, 취업스폰서를

서울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한다. 처음부터 '현지취업'을 목표로 유학을 진행할 수는 없다.

Q:유학 이후 현지취업과 국내귀국중 어떤 쪽이 유리하나.

A:특별한 계층으로 미국 주류사회를 파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켓사이즈'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 교통비는 총 200만달러 정도를 넘어야 한다. 한국은 400만달러다. 당연히 마켓이 큰 곳에 기회가 많고 더 큰 돈을 할 여지가 있다. 현지 취업의 경우 '마켓사이즈'와 한계로 인한 제약을 감수해야할 때가 많다.

Kevin Lee,미주교육신문(www.USAEdNet.com) 발행인